

# 오늘의 북한 농업 실정은 어떤가 ?

## -북한의 농업실상 ①-

국토통일원·숙명여대  
교수 申喆均

이번호부터 국토통일원 및 숙명여대 申喆均 교수님의 북한농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1) 북한의 농업실상, (2) 북한의 곡물생산 및 과수관계 (3) '84, '85 북한의 농업실상을 어떤가? 순으로 연재되며 이번호에는 그 첫번째 순서로 북한의 농업실상을 게재합니다.

5 대 경제난에 부딪치고  
인민의 불평불만 증대돼

‘쌀은 공산주의다’ 70년대에 들어와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침체현상은 북한경제에 심각

한 5 대 경제난(①식량난②원료 및 연료부족③수송설비 불비 ④ 외채난⑤기술낙후)에 부딪치자 김일성은 알곡 1천 5 백만톤 생산을 려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남한과 비교해서 인민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GNP의 23~25%의 군비를 계속 출혈해온 북한으로서는 인민의 불평, 불만이 증대되자 이제 주민생활향상책을 최 우선과업으로 시행해 나가지 않을수 없는 궁지에 있다.

이같은 주민생활 향상시책은 김정일이가 들어서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북한은 80년대에 와서 경제난을 타개 하기위해 '80년대 10대 전망목표'를 발표(80년 10월)하고 특히 식량증산과 국토의 종합적 개발 이용등과 관련된 장기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4대자연 개조사업'의 적극 전개등으로 나가고 있는것이다.

이하 북한의 농업관리체계를 위시하여 저간의 북한의 농업실상을 2~3회에 걸쳐서 간략히 살펴 본다.

## △남·북한 營農기반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農耕地의 비율은 한국이 22.1%인데 비해 북한은 17.3%로 한국이 더 넓고 山林면적은 한국이 68%인데 비해 북한은 81%로 북한이

더 넓다.

북한의 총 耕地면적은 1983년 말 현재 213만 6천 町步로 총경지면적의 61%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 논은 64만정보로 총경지면적의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 전작물 치중의 농업형태 소출적이고 경제성 떨어져

이와같은 田畝의 구성을 통해 볼때 한국은 수도작에 중점을 두는 농업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은 田作物에 치중하는 농업형태를 취하지 않을수 없고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도 소출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1983년현재 북한의 농업인구는 719만명으로 추산되고, 농가戶數는 146만호에 이르며 농가戶當 경지면적은 약 1.5정보로서 이는 한국의 1町步에 비하면 50%정도 많은 것이다.

## △ 농업관리체계

사회주의적 농업관리체계에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가지 所有形態 즉,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國營農·牧場, 國營農機

◇ 남·북한 영농기반

(1983年)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南北對比
耕 地 面 積	萬 町 步	216.7	213.6	1 : 1
(그 중 논)	萬 町 步	131.6	64.0	2.1 : 1
(그 중 밭)	萬 町 步	85.1	149.6	1 : 1.8
農 家 人 口	萬 名	947.5	718.9	1.3 : 1
農 家 戶 數	萬 戶	200.0	145.8	1.4 : 1
戶當경지면적	町 步	1.08	1.47	1 : 1.4

※ 자료 : 國土統一院, 南北韓主要經濟指標 (1984年)

械作業所, 國營 灌溉營理所 등이 다. 그리고 협동적 소유는 협동 농장을 들수 있다.

국영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등은 농업全分野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업구성면에 있어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관리의 기본 원리와 정신은 소위 靑山理方法등으로 김일성이가 교시한 것이다.

즉, 「청산리 방법」이란 1960년 2월 김일성이가 당시 平南江西郡 청산리 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할때 농업관리부문에 대한 지시내용을 농업경영관리의 기본원리로 삼은 것이다.

영농활동에 정치사업선행  
혁명과업 수행 차원 조직

청산리 방법의 내용은 「상급

기관은 하급기관을 돕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도우면서 항상下部에 내려가 실정을 파악한후 이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영농활동에서 정치사업을 선행시켜 농민들을 혁명과업수행이라는 차원으로 조직하고 동원하는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소위청산리 방법이란 토지를 비롯한 모든 농업생산수단이 전면 共有化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성과 소유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 농민들이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자 이것을 타결하기위해 장안한 사상성과 정치성을 강조한 사업이 바로 청산리 방법이라는 것이다.

관리체제를 보면, 처음에는 郡人民委員會 農村經理部에서 郡

内の 농업전반을 장악하여 행정 방식으로 지도관리하였다.

그 결과 관료주의, 독단주의 등이 많았으며, 郡人民委員會 委員 자체의 지도역량 부족과 지도간부의 低收率등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계획수립, 기술, 자재 공급, 노동행정, 재정활동등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할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12월 김일성의 平南 숙천군 현지지도에서의 <敎示>에 따라 종래의 郡人民委員會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시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새로 신설하게 되었다.

1962년 말부터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를 농촌경리의 말단 단위로 하여 道에는 道 農村經理委員會, 中央에는 農業委員會와 一元적으로 연결시켰다. 전문적 농업지도기관이자, 농업기업소의 성격을 띤 同委員會는 郡內 협동농장 및 농업부문의 國家企業所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다.

개편된 농촌 관리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농업관리의 기본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당위원회의 集体的 지도하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2) 郡單位로 공업적, 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촌관리

3) 중앙집권적 一元化 체계의 원칙 반영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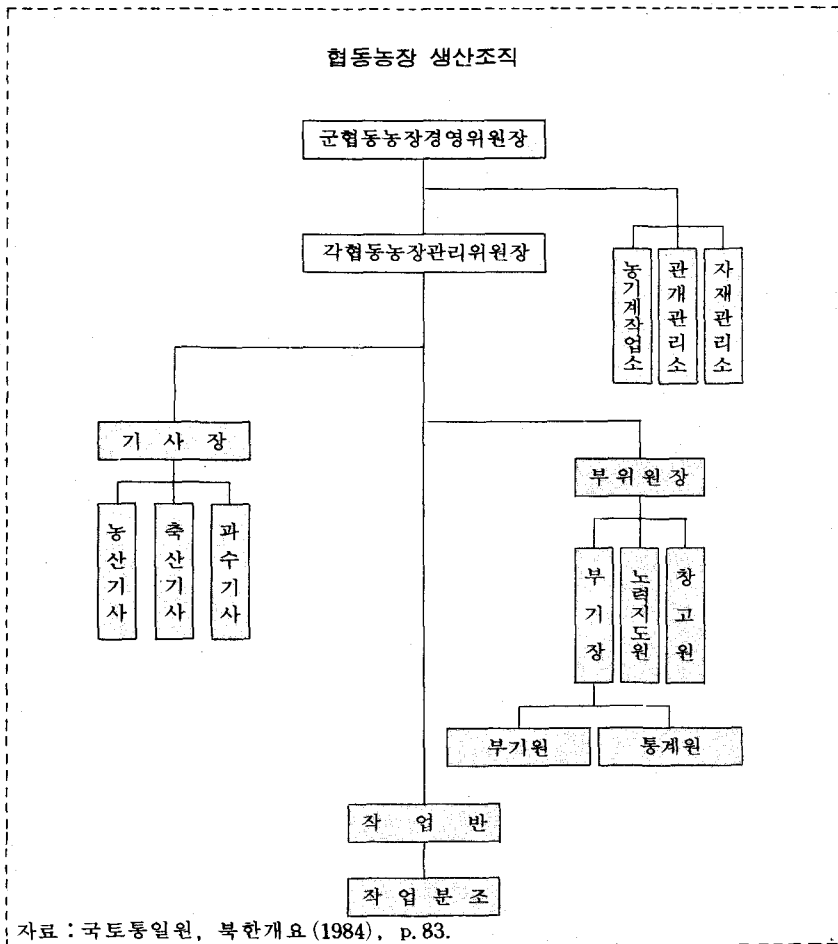
또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에 나타난 농촌경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郡 단위로 기업적, 통합적인 관리: 郡內 협동농장들의 일체의 생산활동과 기업소의 재정활동등 모든 기업활동을 총괄적, 구체적으로 지도

2)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협조의 강화: 郡內의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수리공장, 가축 방역소등 국가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郡 협동경리 전반에서 경제조직성을 높이고, 郡單位인 獨立採算制를 실시할 준비를 갖춘다.

협동농장의 생산 조직에서의 기본형태는 作業班이며, 일정한 경작지, 노동력 및 생산도구를 가지고 부과된 생산과제를 年間을 통하여 수행한다. 작업반 내에는 몇개의 分組가 있으며 分組單位로 작업을 한다.

작업반은 협동농장의 생산규모와 자연부락, 지역적 조건에 따라 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果樹作業班, 농기구수리반등으로 조직되고 그 작업반 밑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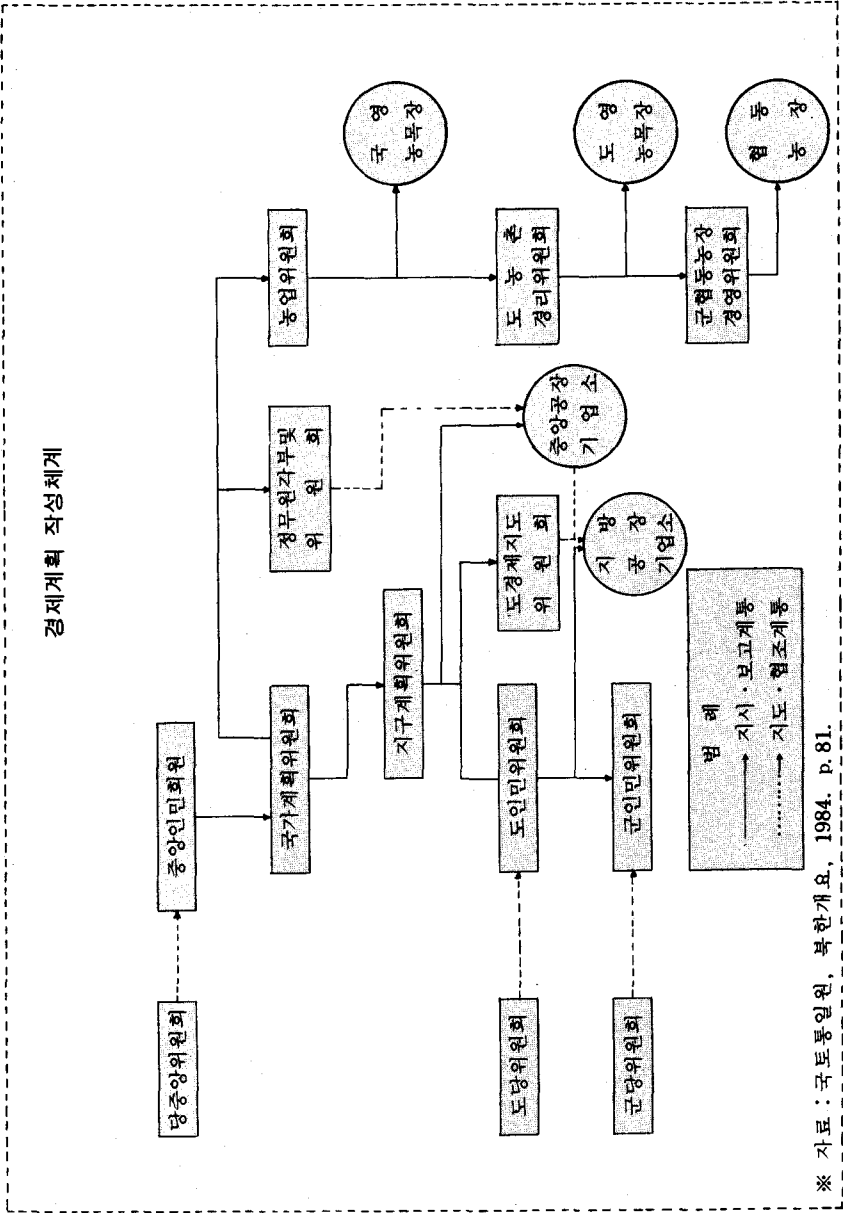


15~20명으로 구성된 分組가 조직되어 있다.

협동농장의 決算分配는 협동농장원의 勞力功手에 의해 실시되는데 勞力功手는, 농장원들이 농산작업에 투하된 <노동의 量

과 質>에 따라 부과되는 평가점수를 말한다.

협동농장원은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과 달리 勞力功手에 따라 現物과 現金을 분배 받는다. 勞力点数는 每日 3~4명으로



※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개요, 1984. p. 81.

구성된 〈勞力評但組〉에 의해 책정된 점수의 총계가 되는 것이다.

협동농장에서 1년간 생산한 總量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收買해 가는 농산물과 시설비〈탁아소 유치원등〉飼料 및 種子, 비료대, 農機械賃耕料, 水利代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농장원들의 노력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배하게 된다.

분배에 있어 작업반 優待制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작업반에 부과된 목표를 초과 수행하였을 경우 그 초과 생산분을 해당 작업반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작업반 우대제와 함께 分組管理制가 실시되고 있는데 分組管理制란 일종의 都給制로 일정한 작업량을 分組別로 할당하는 제도이다.

### △ 농업발전 추진사항

북한은 「청산리 방법」을 기본 원리로 1964년 2월에 열린 노동당 4期 8次全員會議에서는 농촌의 「기술」「문화」「사상」 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강령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水利化, 電氣化,

機械化, 化學化가 추진되었으며, 1974년에는 田畝의 水利化와 농장의 電氣化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水利化: 7개년 계획기간에는 灌溉施設의 확장공사, 권물 뚫기공사와 江河川 정리사업, 植樹 造林사업등에 역점을 두어 水利化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기간에 岐陽 灌溉공사, 靑丹 灌溉공사를 끝내고, 압록강 灌溉공사와 신계 灌溉공사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채소밭에 분수식 관개 체제를 도입하였다.

6개년 계획기간에는 〈만포호〉와 〈은과호〉 〈연탄 저수지〉, 〈평원 저수지〉를 비롯하여 총 117개의 저수지를 건설했으며 40만町步에 해당하는 밭을 관개화하였다.

2次 7개년 계획에서는 나머지 18만町步의 밭 관개를 1978년 4월까지 끝내어 과일 밭과 뽕 밭에 이르기까지 관수체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 밖에 江, 河川건설, 中·小河川정리, 海岸防堤, 물빠기 공사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 機械化: 농촌의 기계화는 1950년대 후반기부터 착수했으

며 1958년에 기양 트랙터 공장에서 트랙터가 생산됨으로써 협동농장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7개년계획 기간에는 농기계 공장의 확장과 농기계 작업소를 2배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1970년대에 와서는 모내기는 기계가 다량 보급되고, 트랙터 대수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平地畝에서는 논밭갈이, 썰레질, 김매기, 비료주기, 탈곡, 운반작업등이 대부분 기계화되

고, 모내기의 기계화만 남은 과제로 되었다.

2차 7개년 계획에서도 트랙터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계속 증가시켜 기계화 수준을 높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실태가 트랙터와 같은 대형 농기계등만으로 확일화되어있기 때문에 營農에서의 효율과 능률면에서 所期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農業의 機械化 水準

( )은 總保有 臺數

年度	區分 耕地 100町步當트랙터臺數 (15馬力換算)	自動車臺數
1953	(764)	
1956	0.13	
1960	0.65	(759)
1963(1)	0.9	(2,200)
1970(2)	2.97	(4,857)
1977(3)	5 ~ 6	(20,000)
1978(4)	평지 6대, 산간지대 5대	100정보당 1,
1979(5)	평지 7대, 산간지대 6대	
1984	10(目標值)	

出處 : <조선중앙년감> 및 <로동신문>.

(1) 1963年 以前은 조선중앙년감 (1963) p. 322.

(트랙터는 총 보유대수를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

○ 化学化 : 7개년 계획기간에 화학비료 施肥量은 1960년에 비해 3.2배로 증가되어 논에는

町步當 674 kg, 밭에는 478 kg으로 높아졌다.

6개년 계획기간에 化学비료



◇ 化學肥料 施肥量

(單位 : kg)

年 度	町 步 當 施 肥 量
1949	131
1956	113
1960	160
1963(1)	300
1970	512(2)(논 : 674, 밭 : 478)(3)
1975(4)	1,000
1977(5)	논 : 1,300, 옥수수 밭 : 1,200
1979(6)	1,500

出處 : (1) 1963년 이전은 조선중앙년감(1964) p.322.

(2) 조선중앙년감(1971) p. 5.

를 町步當 1톤이상으로 肥할 것을 목표로 책정한 결과 1977년에는 논과 밭에 1,300kg의 化學肥料를 施肥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2차7개년 계획에서는 논, 밭町步 化學비료의 施肥量을 2톤이상으로 높이고 磷肥料와 加里肥料의 비중을 높일것을 계획하고 있다.

○ 電氣化 : 1967년말에 농촌 98.2%, 농가의 86.1% 전기가 가설되어 모든 里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었다. 또한 농업의 動力化에 따른 電力消耗量도 증가되고 있다.

그밖에 70년대에 와서 농업발전을 위한 조치로서 자연개조를

들수 있다.

1976년 10월 2일 노동당 제 5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自然改造 5大方針>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 사업에 착수하였다.

5대방침이란 1) 밭 灌溉의 완성 2) 토지 정리, 토지개량 3) 다락밭 건설 4) 治山 治水 5) 간척지 개간등이다.

이 決定에서는 2~3년내에 40만정보의 밭 灌溉건설, 15만 町步의 다락밭 造成, 하루에 400mm의 폭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는 江, 河川 整理, 10만 町步의 간척지 개간등을 주요과업으로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1981년 10월 노동당 6기 제 4차 全員會議에서는 <4大自然改造事業>의 전개를 결정하고 4大건설과업을 제시하며 식량난 타개를 위한 농경지 확장을 위하여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 4 대개조 사업이란
- 1) 1988년까지 30만 町歩의 간척지 개간
  - 2) 20만町歩의 새 땅찾기
  - 3) 1985년까지 南浦閘門 건설
  - 4) 대천 발전소 건설을 말한 다.
- (다음호 계속)

### 소를 타고 간 孟思誠

맹사성(孟思誠)은 세종때의 어진 재상이었다.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으나 반반한 집 한 채도 갖지 못하고 그나마 비가 오면 이곳 저곳 새는 곳이 많아 몸둘곳도 만만치 않았다. 한번은 맹정승이 성묘차 온양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양성(현재의 화성군), 진위(현재의 평택군) 두 고을의 군수가 장호원에 모여서 맹정승을 환영하기 위해 길목을 쓸고 잡인의 왕래를 금지시키면서 맹정승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나절이 되어도 맹정승의 행차는 나타나지 않고 웬 싯갓쓴 늙은이 하나가 소를 타고 뒤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지나갔다.

이를 보고 두 고을 군수는 깜짝 놀라 『저게 웬 놈이나?』하고 사령을 보내어 길밖으로 쫓아 버리려 했다. 사령은 달려가서 앞을 막고 『누가 무엄하게도 정승의 행차길을 함부로 가느냐? 싯 비키지 못할까?』하고 꾸짖었다.

맹정승은 소등에 앉은채 좋은말로 이르기를, 『그렇게 성내지 말고 온양 맹고불(孟古佛)(맹사성의 아호)이 지나가더라고 말하게』

그말을 들은 사령은 그만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를 못하고 맹정승은 그대로 소를 타고 지나가 버렸다. 두 군수는 그만 혼미백산하여 뒤를 쫓아가다가 한 군수는 인(印)이 떨어져 언덕 밑 깊은 못속으로 굴러 들어갔다. 뒷사람이 그 못을 심인연(沈印淵)이라고 이름 지었다 한다.

(牧民心書에서)